

#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상반기 내 1459억 지급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58% 해당 농어민 어려움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차례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어민 공익수당' 1459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인 4월 말과 5월 말

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될 전남도 지역화폐는 1459억원으로, 올해 도가 발행할 지역화폐 2500억원의 58%에 해당된 규모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발행된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19 인한 사회분위기가 위축됨에 따라 농어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 동네방네

### “지역작가가 만든 천연 공예제품 만나보세요”

####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작가 상품 대량제작·판매 지원

쪽 염색의 메카인 전남 나주에서 지역 작가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천연염색 공예·문화상품이 제작되고 있다.

천년 고도 목사(牧使) 고을 나주는 옛부터 목공품, 부채, 죽제품, 무명, 쪽 염색품 등의 공예가 발달된 곳으로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 공예 부흥과 작가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작가들이 참여해 개발한 공예상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70여명의 지역출신 공예작가가 참여해 공예가 융합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나주염색재단은 개별 작가들의 취약점인 대량 제작·판매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 안동시, 공영주차장 한시적 무료 개방

####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안동시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고려해 3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법 주정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노상주차장 27개소 283면과 옥동공영주차장 318면, 터미널공영주차장 304면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상주시, 관내 환경기초시설 자체 방역

상주시 환경관리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환경기초시설(축산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장, 상주시소각장)에 대한 철저한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축산환경사업소는 코로나19 대응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비치했고, 근무자 전원 개별 교육과 함께 감염병의 사업장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반입 차량 소독시설 분무기를 재정비해 운영 중이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오늘의 날씨

3월 2일 (월) 음력 : 2월 8일

수도권 날씨 0 ~ 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02 | 해질 / 18:27

연천 -2/8, 동두천 -2/10, 가평 -1/9, 파주 -2/8, 서울 0/8, 양평 1/9, 인천 1/7, 수원 2/8, 용인 2/8, 평택 0/8, 백령도 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대구-광주, 훈훈한 달빛동맹의 현장

# 대구 환자, 광주서도 치료받는다

#### 경증 확진자 전담병원 이송 치료 일본과 이른시일 내 수술 대책마련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 지역 경증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광주공동체 특별담화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광주에서 코로나19 대구 확진자를 격리 치료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구 경증 확진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 병원과 시립제2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겠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확진자 수술 과정에서 완벽함을 도모하고 가족은 동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빛고을전남대 병원과 시립제2요양병원 두 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환자 간 3m 거리 유지 등 질병관리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각계 대표와 광주공동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 경증 환자를 옮겨와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본부 지침을 지켰을 때 두 곳 병원이 10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시장은 “감염병 전담병원 전체 105병상 가운데 절반은 지역 확진자를 위해 남겨두겠다”며 “나머지 절반 병상에서 대구지역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자를 대구에서 광주로 옮겨오는 일정을 두고는 “질병관리본부와 이른 시일 안에 수술 대책을 세우겠다”며 “지역사회 동의와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송 계획은 아직 마련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1980년 5월 고립됐던 광주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뜻을 함께 한 수많은 연대 손길 덕분”이라며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맺은 형제 도시”라고 강조했다.

담화 발표에는 광주시의회, 광주시 교육청, 광주 5개 자치구, 전남대, 조선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5·18단체,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고흥·장흥·곡성,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유예

# 전남도, 착한 임대료 운동 민관 확산

#### 순천시 건물주 월세 30만원 인하 “어려워진 임차인 고통분담 차원”

#### 도, 상인회·번영회도 참여 권장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전개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 모빌딩 건물주 A씨는 건물에 입주한 4개 업소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 30만원을 일괄 인하했다.

이 같은 소식은 임차인 중 한 명인 B씨가 50만원인 월세를 20만원만 내게 됐으며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건물주 A씨는 “빌딩 구입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임차인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도민 담화에서 도민들도 착



부산 명륜1번가번영회,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동참

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하듯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인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고흥군은 공설시장 6곳의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100% 감면하고 곡성군은 공설시장 3곳 점포 임대료를 2개월간 50% 감면한다.

장흥군은 공설시장 6곳 점포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때까지 유예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의 공설 시장은 87곳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과 상점가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설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대상으로도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북도교육청, 개학 1주일 추가 연기요청

#### 감염병 확산방지·학생안전 도모

경북도교육청은 경북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의 개학을 1주일 추가로 연기(휴

입)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707원과 각급 학교 932교(초 473교, 중 259교, 고 185교, 특수학교 8교, 각종학교 7교)의 개학이 당초 3월 9일에서 3월 16일로 1주일 연장돼

총 2주간 개학 연기(휴업)를 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다시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개학 연기(휴업) 기간 동안 학교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개학 준비, 방역 관리, 등교 희망 학생 관리 등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처리한다.

/문봉현 기자